

일본 근대문학에 나타난 에도시대의 전통 고찰

-나쓰메 소세키의 『그 후』에 묘사된 참살과 할복-*

權赫建** · 金泰寬*** · 車珉庚****

(**e-mail : kwon6134@hanmail.net)

(***e-mail : tkkim@deu.ac.kr)

(****e-mail : slay1712@yahoo.co.kr)

目次

1. 서론
 2. 나쓰메 소세키와 에도시대의 전통
 3. 참살
 4. 할복
 5. 결론
-
-

1. 서론

작품 『그 후(それから)』가 110회에 걸쳐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된 것은 1909년(明治42) 6월 27일부터 같은 해 10월 14일까지이다. 당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는 만 나이로 42세였다.

에도시대 말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야담(講談)과 라쿠고(落語) 등 에도시대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성장한 나쓰메 소세키는 일본의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3-A00011)

** 동의대학교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 동의대학교 교수 중국근현대문학

**** 동의대학교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서구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항상 고뇌했던 작가이다.

『그 후』의 주인공 나가이 다이스케(長井代助)는 서양식 고등교육을 받은 근대 지식인이며, 그의 아버지 나가이 도쿠(長井得)는 에도시대의 무사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시대가 메이지(明治)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도시대의 사교방식과 전통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그 후』의 주인공 다이스케와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나가이 도쿠가 젊은 시절 무사(武士)였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에도시대에 존재했던 무사와 그들의 행동 규범이었던 무사도를 알아보고 난 이후, 그것을 『그 후』에 나타난 무사의 참살, 할복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해 보겠다. 위와 같은 차이점 분석을 통해 에도시대 후기 무사들의 행동과 무사도를 포함한 전통 변모가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고 한다.

이제까지 일본을 포함한 국내외에서 발표된 『그 후』 연구물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편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본과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물 숫자만 어림잡아도 570편 이상이다.

이제까지 발표된 논문 가운데 참신하고 독창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후』에 관계된 논문을 두 편 소개해 보면 사이토 히데오(齋藤英雄)의 「진주 반지의 의미와 역할-『그 후』의 세계-」와 윤혜영의 「『산시로(三四郎)』와 『그 후(それから)』에 묘사된 감각표현 고찰」이다.

사이토 히데오는 작품 속의 남성이 여성에게 진주 반지를 주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했다.¹⁾ 윤혜영은 작품 속에 매몰되어 있는 감각표현의 특징을 찾아내어 논을 전개해 나갔다. 작품 모두(冒頭) 부분의 누군가 황급히 뛰어가는 발소리는 마지막 부분의 조용한 골목길에 울리는 다이스케 자신의 발소리와 호응되며, 황급한 「문명사회로 뛰어드는 다이스케의 운명을 암시」²⁾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 국내외에서 발표된 『그 후』에 관한 연구물은 44편 이상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발표된 선행 연구물 가운데 「일본 근대문학에 나타난 에도시대의 전통 고찰」을 테마로 삼아, 그 가운데 『그 후』에 나타난 무사의 참살과 할복을 에도시대에 존재했던 무사도와 비교하여 고찰한 연구는 발견하지 못했다.

1) 齋藤英雄 「真珠の指輪の意味と役割-『それから』の世界-」(『夏目漱石Ⅲ』, 有精堂, 1985) 148-159쪽 참조.

2) 윤혜영 「『산시로(三四郎)』와 『그 후(それから)』에 묘사된 감각표현 고찰」(『나쓰메 소세키의 전기 삼부작 연구』, 韓國夏目漱石研究會 編, 2005) 89쪽.

2. 나쓰메 소세키와 에도시대의 전통

전통(傳統)이란 일반적인 의미로는 습관이 된 풍속이 「전대(前代)로부터 후대(後代)로 전해지는 것으로서, 동시에 시간적·공간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민족의 전통을 자랑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습속(習俗)만이 아니라 정신적·문화적인 것, 즉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과 그 내용」³⁾을 가리킨다.

전통을 좀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국가와 민족, 집단, 공동체에서 좋고 나쁨을 떠나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풍속, 행동 등을 아우른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나쓰메 소세키가 태어난 해인 1867년(慶應3)은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7) 15대 장군(將軍)인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가 국가통치권을 천황이 지도하고 있는 조정에게 반환하는 대정봉환(大政奉還)이 실현되어 사실상 에도막부(江戶幕府)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롭게 천황제국가가 성립된 때이다. 그는 에도시대 말기인 게이오(慶應) 3년에 태어났으나, 이듬해인 1868년(明治元年) 8월 27일에 메이지천황(明治天皇) 즉위식이 거행되어 연호가 메이지(明治)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에 살았다.

에도시대 말기에 태어난 나쓰메 소세키가 실제로 살았던 메이지 라고 하는 시대는 일본이 긴 쇠국을 그만두고 외국에 문을 활짝 열어 서양문명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기이다. 서양을 따라잡아 추월하려고 일본의 국가와 국민이 서양문명·서양문화 섭취에 노력했던 시대였다.⁴⁾

위와 같은 서양문명·문화 섭취라는 새로운 시대의 물결은 차례로 옛것을 부수어 버리고 놀랄 정도의 속도로 일본을 바꾸어 나갔다. 그러나 나쓰메 소세키가 태어나 자란 메이지시대는 서양의 문화와 사회제도를 받아들인 진보와 발전이 함께 하는 시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도시대의 전통과 근대 이후 서양에서 물밀듯이 들어온 신문화가 혼동을 이루었던 불안정한 시대였다.

어린 시절에 나쓰메 소세키는 자신이 어떤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가 에도시대 말기에 태어나, 격동이 휘몰아치는 메이지시대에 에도시대의 전통과 근대 이후 서양에서 들어온 신문화가 혼동을 이루고 있던 도쿄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에도시대 전통의 변모를 누구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3) 한국어위키백과사전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65094>

4) 三田村信行 『夏目漱石』(偕成社, 1994) 9-11쪽 참조.

나쓰메 소세키는 1884년(明治17) 9월에 당시 도쿄 간다 히토쓰바시(一ツ橋)에 있던 도쿄대학예비문(東京大學予備門) 예과(予科)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도쿄대학예비문에 입학한 뒤 이제까지 하숙을 했던 고이시카와(小石川)의 절에서 사루가쿠초(猿樂町)의 스에토미야(末富屋)라는 하숙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 하숙집에는 동급생이 많이 하숙하고 있었다. 수험 준비에서 해방되어 누구나 할 것 없이 노는 것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⁵⁾

1886년 7월 나쓰메 소세키는 수업이나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놀기만 한 데다 복막염(腹膜炎)을 앓았기 때문에 진급시험을 칠 수 없었다. 나쓰메 소세키는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을 계기로 그때까지의 생활을 반성하고 구태여 추가시험을 치르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결국 낙제를 했다.⁶⁾

당시 친구였던 하시모토 사고로(橋本左五郎)의 회고 등을 고려해볼 때, 나쓰메 소세키를 비롯한 친구들은 에도시대의 전통문화라고 볼 수 있는 요세(寄席)⁷⁾에 가서, 야담(講談)을 비롯하여 라쿠고(落語), 그리고 당시 유행하기 시작했던 여자가 낭창하는 옛 이야기 등 에도시대의 예능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성장했다. 그의 야담 취미는 청년기·장년기에 걸쳐 일관되게 계속 되었다.⁸⁾

나쓰메 소세키는 1906년(明治39) 4월 잡지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에 발표한 『도련님(坊っちゃん)』을 통해 주인집 아들에게 충성을 다해 봉사하는 특이한 하녀의 모습을 묘사했다. 「기요(清)」라고 불리는 이 나이든 하녀는 본래 지체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 그런데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가 붕괴되면서 가문이 몰락하여 결국엔 「붓짱」 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기요」는 에도시대에 태어나 메이지시대를 살고 있는 할멈인 것이다. 「기요」가 가정교육을 받고 성장했던 시대는 에도시대였다. 그런데 「기요」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헌신적인 사랑으로 도련님을 귀여워하며 사랑이 듬뿍 담긴 눈빛과 행동으로 「붓짱」을 돌보아 주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의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붓짱」을 인정해 주고 귀여워해 주는 사람은 하녀인 「기요」 할멈뿐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기요」는 이상하리 만치 점점 「붓짱」을 애지중지(愛之重之)했다. 이따금 자신의 용돈으로 그 당시 손쉽게 살 수 있었던 일본식 구운 과자인 긴쓰바 등을 사주기도 했다. 또한 하녀 「기요」는 「붓짱」에게

5) 丸谷才一「慶應三年から大正五年まで」(『夏目漱石』, 河出書房新社, 1990) 11쪽 참조.

6) 앞의 책, 三田村信行『夏目漱石』, 32-33쪽.

7) 야담(講談)·라쿠고(落語)·로쿄쿠(浪曲) 등의 대중 예술을 상연하는 공연 연예장.

8) 오현수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강담(講談) 취미」(『일어일문학연구』「第45輯」, 2003) 150-154쪽.

돈을 3엔 정도 빌려주었던 일까지 있다. 당시 하녀의 월 임금이 「3엔」이었으므로 「기요」가 「봇짱」에게 준 3엔이라는 금액은 자신의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었다.

「봇짱」은 그 3엔을 지갑에 넣고 허리춤에 낀 채로 재래식변소에 갔다가 3엔을 텀병하고 변소 구멍 속에 빠트렸다. 「기요」는 재빨리 대나무 가지를 찾아내 가지고 와서 재래식 변소 구멍에 떨어뜨린 3엔을 건져 올렸다. 건져 올린 돈을 물로 씻어서 화롯불에 말려 「봇짱」에게 주었으나, 「봇짱」이 냄새가 난다고 하자, 어디서 은전으로 바꾸어 와서 3엔을 돌려주었던 일까지 있다. 「기요」는 「봇짱」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봇짱」 한 사람에게만 애정을 주며, 친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요」가 「봇짱」 한 사람에게만 애정을 쏟으며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기대어 살려고 하는 것은 형과 부모님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 온 「봇짱」에 대한 동정심(同情心)과 배려(配慮)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에도시대에 태어나 성장한 「기요」의 이와 같은 행동에는 비록 신분은 하녀이지만 자신이 섬기는 주군을 위해 지극정성(至極精誠)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봉사하는 에도시대의 무사적 전통이 배어있다고 생각된다.

『夢十夜』는 1908년(明治41)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10회에 걸쳐서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되었던 작품이다. 『夢十夜』 「第八夜」의 거울 속 세계를 통해 나타난 장면 가운데는 일본 에도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통적 풍경 가운데 하나인 좁쌀떡 장수가 등장하여 궁금증과 재미를 독자에게 선사하고 있다.

『夢十夜』 「第八夜」에 등장하는 좁쌀떡장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좁쌀떡, 좁쌀떡, 좁쌀떡 사아려 하는 소리가 바로 근처에서 났다. (중략) 좁쌀떡 장수는 어릴 때 보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좀 보고 싶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도무지 좁쌀떡 장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떡을 찢는 소리가 들릴 뿐이다.⁹⁾

좁쌀(粟)은 오곡(五穀)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일본에 농경이 전래된 이후 중요한 식량이었다. 일본은 벼 재배 기술 보급이 늦어진 산촌 마을은 물론이고, 농촌에서도 정월과 축제(마쓰리) 때에 좁쌀로 밥과 떡을 해서 먹었다.¹⁰⁾

9) 夏目金之助 『漱石全集』 「第12卷」, 『夢十夜』 (岩波書店, 1994) 123쪽.

10) 相賀徹夫編 『日本大百科全書』 「1」 (小学館, 1987) 855-856쪽 참조.

좁쌀떡장수는 에도시대부터 있었다. 그런데 좁쌀떡 가게는 좀처럼 드물었다. 좁쌀떡장수는 절의 행사 때나, 사람들이 많은 길가에서 좁쌀떡을 팔았다.¹¹⁾

『夢十夜』 「第八夜」의 주인공 「나」는 옛날 어린 시절에 보았던 좁쌀떡 장수를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발소 거울 속에 좁쌀떡장수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좁쌀떡을 찢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주체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이 들리는 좁쌀떡 장수는 「서구문명에 의해 왜곡되거나 혹은 도태되는 전통에 대한 작가의 불안」¹²⁾한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어릴 때부터 에도시대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성장한 나쓰메 소세키는 에도시대 후기에 지체 있던 가문의 여성이 주인집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주는 모습과 에도시대·메이지시대 초기에 존재했던 좁쌀떡장수를 보고 싶어 하는 갈망 등을 다양한 각도로 『도련님』과 『夢十夜』 「第八夜」를 통해 묘사했다.

3. 참살

무사라는 말이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8세기 전반으로 문인(文人)에 대비되는 말로 사용되었다. 9세기에는 율령의 동요와 함께 율령 체제 하에서 시행되던 징병제가 폐지되고, 호족이나 수렵을 생업으로 삼던 사람들이 군사력으로 이용되던 것이 무사의 직접적인 기원이다.

무사에게 있어 무예의 기본은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술이었다. 중세에서 무예를 궁마(弓馬)의 예(藝), 무사를 궁마의 사(士)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을 찬 무사의 모습은 근세 이후에 형성된 이미지이다.

1185년 헤이시(平氏) 세력을 멸망시킨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는 가마쿠라(鎌倉)를 근거지로 무가정치의 틀을 마련한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조정으로부터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이라는 관직에 임명되고, 자신을 따르던 무사들과는 주종관계를 맺고, 무사정권을 수립하여 천황을 대신하여 일본을 지배하게 되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무사정권을 세워 1192년 일본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를 열었다. 그 후 가마쿠라 막부의 뒤를 이어 1338년에는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가 수립되었다.¹³⁾

11) 三谷一馬 『明治物売図聚』(立風書房, 1991) 160쪽 참조.

12) 권혁건·이호규·황은미 「일본 근대문학에 나타난 근대와 전통 고찰-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 「第八夜」를 중심으로-」(『한국일본학연합회 제7회 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프로시딩』, 한국일본학연합회, 2009) 222쪽.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가신들과 대립하여, 1600년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에서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를 중심으로 한 도요토미 세력을 격파하고, 1603년 정이대장군에 임명되어 에도막부(江戸幕府)를 수립했다. 일본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1192년 가마쿠라막부를 수립한 이후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 의해서 메이지천황 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676년간 무사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특이한 무인통치시대를 경험한 나라이다.¹⁴⁾

에도막부는 막부의 장군과 다이묘(大名)가 주종관계를 맺고 전국을 지배하였다. 막부는 다이묘를 견제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 정책을 폈다.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를 발표하여 다이묘의 성(城) 신축을 금지시키고 성의 수리와 개축을 제한하였다. 또한 무사를 정점으로 사농공상의 엄격한 신분제를 시행하였다. 이 시대에 무사는 다이토(帶刀), 묘지(名字), 기리스테고멘(切り捨て御免)¹⁵⁾의 특권을 누렸다.

이와 같은 제도는 무사의 권위, 에도시대의 신분제도가 얼마나 엄격했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전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은 연공을 납부하여 무사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¹⁶⁾

『그 후』에 등장하는 나가이 도쿠(長井得)는 예전에 무사였다. 그의 일가족은 막말(幕末) 때 도막(倒幕)측에 붙어 번을 지탱했다. 그의 얼굴은 나이에 비해 살이 많고 볼이 훌쭉한 노인이다. 「질은 눈썹 아래에 눈꺼풀이 처져 보인다. 수염은 새하얗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랗다.」¹⁷⁾

나가이 도쿠는 나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 첩을 두고 있으며, 장남인 나가이 세이고와 차남인 나가이 다이스케가 있다. 메이지유신 때 보신전쟁(戊辰戰爭, 1868년~1869년)¹⁸⁾에 참가한 전쟁체험이 있는 그는 보신전쟁에 참가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보신전쟁은 신정부군이 승리를 하여 신정부군의

13) 연민수 『일본역사』(보고사, 1998) 85-121쪽 참조.

14) 공의식 「일본의 무사도와 그 현대적 의미」(『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책사랑, 2002) 44-45쪽.

15) 평민이 사무라이에게 누를 범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 있는 특권. 앞의 책, 공의식 「일본의 무사도와 그 현대적 의미」 53쪽 참조.

16)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편 『교양으로 읽는 일본사회와 문화』(제이앤씨, 2006) 61-62쪽 참조.

17) 夏目漱石 『漱石全集』「第四卷」(岩波書店, 1966) 『それから』「3」, 344쪽. 본 논문의 텍스트는 『漱石全集』「第四卷」(岩波書店, 1966)을 사용했음. 논자번역 이하 같음. 이후 주(注)에 표기되는 텍스트 인용은 텍스트 3」, 344쪽과 같이 간략하게 표기하겠음.

18) 보신전쟁(戊辰戰爭)은 1868년에 막부파(幕府派)와 막부(幕府) 반대파(倒幕派) 사이에 있었던 내란임, 그 결과 막부 반대파의 지지를 얻은 메이지천황에 의한 통일국가가 완성됨. 下中弘 『日本史大事典』第6卷」(平凡社, 1994) 160-161쪽 참조.

지지를 얻은 메이지천황에 의해 메이지 통일국가가 완성되게 되었다. 무사였던 그는 보신전쟁에 참가한 것이 인연이 되어 메이지유신 이후 관직에 들어갈 수 있었다. 관직을 지낸 다음, 실업계로 뛰어들어 당시 관료·권력자들과의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고 이력저력하는 사이에 돈을 모아 근래 십사오년 사이에 상당한 재산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나카이 도쿠가 재산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메이지유신 당시 보신전쟁 때에 신정부군 측에 참가했던 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만약에 그가 구막부파(舊幕府派) 측에 들어가 신정부군과 싸웠더라면 메이지유신 이후 관직에 오르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사업을 하여 성공을 하기도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메이지유신 당시 메이지천황 편에 서서 신정부군 밑에서 막부를 타도하는 전쟁에 참가하여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관직에도 오를 수 있었고, 이후 사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들에게 배짱이나 담력을 강조하는 나카이 도쿠는 에도시대 말기에 형인 나카이 나오키(長井直記)가 열여덟 살이 되던 해의 가을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성 마을 외곽에 있는 도카쿠지(等覺寺)라는 절에 사는 스님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전하러 갔다. 용건은 바둑을 두러 오라든가 하는 내용으로 답장도 필요 없을 만큼 사소한 것이었다. 그런데 스님에게 붙잡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늦어져서 해가 지기 한 시간 전 쯤에 겨우 절을 나섰다.

아버지의 편지를 전해 드리고 절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날은 무슨 축제가 있어서 거리가 몹시 혼잡했다. 군중 사이를 빠져나와 서둘러 돌아오려고 하는 참에 두 사람은 어느 골목길로 접어드는 모퉁이에서 강 건너에 사는 호기리(方限り)라고 불리는 자와 맞부딪쳤다. 호기리와 나카이 도쿠 형제는 평소 사이가 나빴다. 술기운이 있는 호기리와 두세 마디 욕신각신하는 사이에, 호기리가 갑자기 칼을 들고 내리쳤다. 칼을 맞은 쪽은 형인 나카이 나오키였다. 하는 수 없이 나카이 나오키도 허리에 찬 칼을 뽑아 맞췄지만, 상대는 평소에도 매우 평판이 나쁜 난폭한 자라서 잔뜩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척 췌다. 가만히 있다간 형이 질 것 같아 동생인 나카이 도쿠도 칼을 뽑았다. 그리하여 형제 둘이서 상대인 호기리를 마구잡이로 찢러 죽였던 것이다.

서양의 칼이 「찌르고 쑤신다」를 목적으로 하는 양쪽에 날이 있는 검(劍)인 것에 비해, 일본도는 「자른다」를 목적으로 하는 한쪽 날의 칼이다. 일본도는 도검의 필요 조건인 「꺾이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잘 잘린다」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일본도는 몇 번이고 때려 늘려서 단련시키고, 금속을 고도로 가열한 후 급냉시키는 것에 의해 경도를 증가시켜 연마하는 일본 독자의 제법에 의해 완성된다. 때문에 여러 외국에서 예를 볼 수 없는 우수한 기술로

시원스럽게 뻗친 곡선, 균형 잡힌 형태, 날무늬의 변화 등에 아름다운 매력을 뽐내고 있다. 한쪽 날로써 휘어짐을 가진 일본도의 기본형식은 헤이안시대(平安時代)에 완성되었고, 가마쿠라시대에 우수한 도공이 배출되었다. 16세기중반에 총포가 전래되기까지는 일본도가 무사들의 주요한 무기였다.¹⁹⁾

에도시대의 유교사상에 뒷받침되어져 무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행동 규범, 도덕율인 무사도가 완성되자 일본도는 그 상징이 되었다. 무사들은 칼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고, 집안의 명예와 자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대의 보물로 여겼다. 흐려지기 쉽고 녹슬기 쉬운 칼을 항상 빛나게 하여 무사의 혼으로서 소중하게 취급했다.²⁰⁾

무사는 크고 작은 두 자루의 칼, 즉 대도(大刀)와 소도(小刀)를 외출시 언제나 허리에 차고 나갔으며, 집에서 서재나 거실에 머물 때에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빼기 좋은 상태로 잘 비치해 두고, 밤에 취침시에는 여차 하면 손에 닿을 수 있는 머리맡에 놓아두었다.²¹⁾

칼은 이처럼 일상의 반려자로서 사랑을 받았으며, 무사들은 칼에 애칭을 부여하는 등, 거의 숭배에 가까울 정도로 칼을 존중했다. 무사의 힘과 용기의 상징인 칼은 무사에게 있어서 충성과 명예의 상징이기도 했다.²²⁾

무사도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명예란 자신의 이름에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지는 의무는 크게 주군을 섬길 의무와 이름에 대한 의무, 그 외의 의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무사에게 있어 명예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로써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떡장수의 이웃집에 가난한 홀아비 사무라이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떡집에서 놀다가 돌아간 후 떡장수는 떡 한 접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사무라이의 아들에게 혐의를 두게 되었고 떡장수는 그에게 떡값을 내라고 하였다. 사무라이는 「아무리 가난할망정 내 자식은 사무라이의 자식이다. 남의 가게에서 떡을 훔쳐 먹었을 리가 없다」라고 극구 해명하였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졸라대는 떡장수에게 참다못한 사무라이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칼을 빼 아들의 배를 갈라 떡을 먹지 않았음을 입증해 보인 다음, 그 칼로 떡장수를 베어 죽이고는 할복해 자살하였다.²³⁾

위의 이야기에서 무사는 칼을 빼어, 아들의 배를 갈라 떡을 먹지 않았음을

19) 学研·語学ソフトウェア開発部 編 『JAPAN AS IT IS 日本タテヨコ』(学研, 1985) 266쪽 참조.

20) 위의 책, 266쪽.

21) 니토베 이나조 저, 이만희 편 『일본인들의 무사도 정신』(학문사, 2002) 157쪽.

22) 니토베 이나조 저, 양경미, 권만규 옮김 『일본의 무사도』(생각의나무, 2006) 152-211쪽.

23) 김 영 『일본문화의 이해』(제이앤씨, 2002) 234쪽.

입증해 보인 다음에, 떡장수를 베어 죽였던 것이다. 무사는 사사로운 일로 칼을 빼어 남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도 할복해 자살하였던 것이다.

무사사회의 행동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초기 봉건시대에는 『그 후』의 호기리와 나가이 도쿠 형제와 같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는 기회가 되면 칼을 뽑아 사람을 베어버렸다.

하지만 에도시대에 들어오면서 신분제도와 봉건제도가 확립되면서 무사사회의 규칙이 엄격해 지고, 무사도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게 형성되자, 칼은 무사의 혼(魂)으로 간주되며 힘·용기·명예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무사도에서 칼의 정당한 사용은 무엇보다도 강조되었으며, 그 난용(亂用)을 혐오하고 규탄했다. 칼을 뺄 상황도 아닌데 빼서 휘두르는 자는 「비겁한 자」 또는 「허세부리는 자」라고 불려 조소(嘲笑)의 대상이 되었다. 침착하고 냉정한 무사는 칼을 뺄 때를 정확히 알았다.²⁴⁾

가마쿠라시대의 무사에 있어서 최고의 승부는 「일대 일 승부(一騎打ち)」²⁵⁾였다. 검술·궁술 등으로 단련된 무사와 무사 사이의 결투는 기량과 용기를 다한 자부심 높은 격투이며, 이 싸움이야말로 무사를 만드는 원천이었다.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일반인들은 무사의 상대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프로 격투기 선수의 상대는 자신보다 약한 일반인들이 아닌 자신과 똑같은 신분을 가진 프로 격투기 선수인 것과 같이, 무사들도 자신보다 약한 일반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무사의 자부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때에 따라서 일반인을 학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무사에게 있어서 본래의 싸움이 아니었다. 단지 무사의 자부심인 칼을 더럽히는 행위였다. 강한 상대, 싸움에 어울리는 상대와 목숨을 건 대결이야 말로 무사의 영웅심을 드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²⁶⁾

위와 같은 무사도의 행동규범을 고려해 볼 때 나가이 도쿠 형제와 호기리의 싸움은 무사들의 목숨을 걸고 영웅심을 드높이는 싸움이 아니었다. 단지 자부심 높고, 명예를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는 무사의 칼을 더럽히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호기리는 술에 취해 무사의 혼으로 간주되며, 힘과 용기, 명예를 상징하는

24) 앞의 책, 니토베 이나조 저, 이만희 편 『일본인들의 무사도 정신』, 155-161쪽.

25) 일대 일 승부(一騎打ち) : 전쟁 상태에 있는 전장에서 말을 탄 전사(戰士)끼리가 일대일을 원칙으로서 싸움을 붙이는 전투 수법이다. 결투와도 유사한 면이 있지만, 결투에는 전장(戰場)에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투도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중세(中世) 전기(가마쿠라시대 후기)까지 무사단을 구성하는 무사의 사이에 행해졌다. 수법이나 작법으로 당사자인 무사간의 문화나 가치관, 전술 수법이 어느 정도 공통인 것을 전제로 하는 전투 수법이다.

인터넷 주소: <http://ja.wikipedia.org/wiki/%E4%B8%80%E9%A8%8E%E6%89%93%E3%81%A1> 참조.

26) 인터넷 주소: http://www5a.biglobe.ne.jp/~rjltof/new_page_15.htm#三 참조.

칼을 난용한 비겁한 무사였던 것이다. 나가이 도쿠 형제도 무사들의 이상적인 싸움인 「일대 일 승부」를 피하고, 「일대 이」로 승부를 하여 겨우 승리한 것이다. 즉, 무사도의 이상적인 행동규범을 저버리고 나가이 도쿠 형제 둘이 합세를 하여 한 사람의 무사인 호기리를 상대로 해서 싸워, 끝내는 그를 마구 찢러 참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가이 도쿠 형제와 호기리는 무사의 힘·용기·명예를 상징하고 혼으로 간주되는 칼을 함부로 휘둘렀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사로운 일에 사투(私鬪)를 벌인 무사로서 매우 불충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나가이 도쿠 형제가 호기리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막부의 법을 어긴 이상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다.²⁷⁾

에도시대 후기에 무사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이는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는 누군가 나에게 칼을 들이댄다면 나 역시 칼을 빼들어 맞서야 했다. 하지만 무사들이 싸움을 할 때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무사끼리의 싸움은 일대일 싸움이여야 하고,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의 싸움을 명예로운 싸움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에도시대에서 메이지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는 무사들의 규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나가이 도쿠와 나가이 나오키가 호기리를 참살한 다음, 둘 다 남몰래 집을 떠난다. 나가이 나오키는 그 후 교토(京都)로 갔다. 그 당시 막말의 교토는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었으며 피비린내가 나는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었다. 나가이 나오키가 교토의 여관에서 살해되었을 때는 두건을 두른 떠돌이 무사들이 우르르 여관으로 몰려왔다. 당황한 나가이 나오키가 2층 처마에서 뛰어내리면서 정원석에 걸려서 넘어지자 떠돌이 무사들이 몰려와 위에서 사정없이 내리치는 바람에, 그의 얼굴이 생선회처럼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죽었다.

나가이 나오키가 왜 교토에서 떠돌이 무사들에게 참살을 당했는지는 작품속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알 수가 없다. 그가 집을 떠난 지 사 년째 되던 해에 세상은 급격하게 메이지시대로 변했다.²⁸⁾

하지만 나가이 나오키가 교토에서 떠돌이 무사들에게 무참하게 참살당하는 장면을 고려해보면 당시 무사들의 규율이 무너지고, 이미 예전의 무사도정신은 붕괴되어버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무사가 무사를 죽일 수 없다는 무사도의 규율을 지키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사를 참살하는 것이 에도시대 말기

27) 구태훈 『일본의 무사도』 (태학사, 2005) 174-175쪽.

28) 텍스트 「3」 357쪽 참조.

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작가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이 나오키라는 무사가 떠돌이 무사들에게 무참하게 참살당하는 것은 무사시대의 명예로운 전통이 종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암시한 사건으로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4. 할복

무사란 정월 초하루 아침부터 그해 선달 그믐날 저녁에 이르기까지 매일 낮과 밤을 한결같이 마음에 죽음의 각오를 다지고 살았다. 무사사회에서는 「죽음에의 각오」가 서 있는지 여부가 그가 무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다.²⁹⁾

전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 무사만큼 도움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치는 존재는 없다. 무사도의 고전 『하가쿠레(葉隱)』의 초두에 쓰여 있는 유명한 경구(警句) 「죽음에 대한 각오가 서 있지 않으면 무사도를 추구할 수 없다」라는 문장도 무사사회의 토양에서 자라난 말이다. 「죽음에의 각오」³⁰⁾라는 개념은 시대가 지나도 무사의 기본자세로서 가치가 변하지 않고 있다.

무사가 「죽음에의 각오」를 가장 선명하고 강렬하게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할복(腹切り)인 것이다. 즉 할복은 칼로 배를 갈라 죽는 것으로, 자살 또는 사형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할복자살은 헤이안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의 중세시대·근세시대에 널리 행해졌다.³¹⁾

형벌로 받는 할복은 무사신분에 한하였다. 서민이 아무리 할복을 원하여도 용인되지 않았다. 할복은 무사의 특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만큼 괴로운 자살 방법도 없을 것이다. 할복하는 사람은 단도를 손에 쥐고, 자신의 배꼽에서 3센티미터 위쪽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고, 그대로 오른쪽 옆구리까지 가르는 방법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무사인 그들은 배를 찌르는 깊이가 1센티미터 내지 1.5센티미터를 넘지 않는 작법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1.5센티미터 이상을 찌르면 배를 가르기 어렵기 때문이다.³²⁾

무사들은 인간의 영혼과 애정이 뱃속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여, 나의 영혼이 머무는 곳을 활짝 열어 당신에게 날날이 보여주고 싶다. 나의 영혼이 더러운가 깨끗한가를 당신의 눈으로 확인받고 싶다는 상징적인 행동이 할

29) 앞의 책, 니토베 이나조 저, 이만희 편 『일본인들의 무사도 정신』, 223쪽 참조.

30) 위의 책, 223-224쪽.

31) 下中弘 編集 『日本大事典』 「第四卷」(平凡社, 1993) 237쪽 참조.

32) 위의 책, 285-287쪽 참조.

복인 것이다.³³⁾

또한 무사들에게는 자연사(自然死)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할복이야말로 무사들의 명예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할복을 할 때 할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할복하는 사람 뒤에서 목을 쳐 주는 사람을 「가이샤쿠(介錯)」라고 한다. 할복하는 사람은 단도를 들어 왼쪽 배 아래를 깊게 찌르고 나서 우측으로 배를 서서히 가른 다음 그 칼을 다시 위쪽으로 향해 가른다. 그리고 칼을 뽑아 앞으로 몸을 굽혀, 목을 치기 좋게 내민다. 그 순간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가이샤쿠가 칼을 뽑아 할복하는 사람의 목을 단숨에 내려친다. 단칼에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 몸뚱이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용감하고 기백 있는 무사였다.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광경이다. 숨이 끊긴 몸뚱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처참한 피의 소리가 정숙한 분위기에서 울려 퍼질 때, 가이샤쿠는 절을 하고 할복 장소를 떠난다.³⁴⁾

할복자살에 가이샤쿠가 필요하게 된 관습은, 할복하는 사람이 자력으로 복부에 상처를 내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즉, 사무라이의 자제력과 용기는 가이샤쿠가 머리를 떨어뜨리기 전에 그가 복부를 어느 정도 갈랐는가에 따라 표현되었던 것이다.³⁵⁾

가이샤쿠를 해 주는 사람은 훌륭한 신분의 사람이었으며, 양자(兩者)의 관계는 희생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닌 주역(主役)과 조역(助役)의 관계가 되었다. 가이샤쿠의 역할은 할복하는 사람의 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집행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할복하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³⁶⁾

할복은 일본 전통에 있어서 가장 명예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가이샤쿠가 될 자격조차 없었다. 훌륭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한 번에 목을 쳐서 할복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했다. 즉, 칼을 잘 다루고 그 누구보다 할복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무사이어야 했다.

나카이 도쿠 형제는 평소에 매우 평판이 나쁜 호기리를 둘이 합세하여 칼로 마구 찢러 죽였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두 형제에게는 아래와 같은 에도시대 무사사회의 엄격한 관습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무사가 무사를 죽이면 죽인 쪽이 할복을 해야만 했다. 형제는 그럴 각오를 하고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도 두 아들을 나란히 앉

33) 앞의 책, 니토베 이나조 저 『일본인들의 무사도』, 142-143쪽 참조.

34) 앞의 책, 김 영 『일본문화의 이해』, 237쪽.

35) 이케가미 에이코 지음, 남명수 옮김 『사무라이의 나라』 (지식노마드, 2008) 382쪽.

36) 앞의 책, 구태훈 『일본의 무사도』, 287-288쪽.

혀 놓고 할복할 두 아들의 목을 자신이 직접 차례로 내리칠 생각이었다.³⁷⁾

호기리와 칼을 빼든 싸움에서 나가이 도쿠 형제가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무사가 무사를 죽인 것은 무사도의 행동규범과 관습, 막부의 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나가이 도쿠 형제는 할복을 면할 수 없었다.³⁸⁾

당시 무사라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젠가 한 번은 주군의 일에 크게 도움이 되고 나서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야 했다. 무사가 병으로 죽는 것조차 면목이 없는 일이거늘, 하물며 미련하게도 별것도 아닌 사사로운 싸움에 휘말려 상대 무사를 죽이고, 자기도 할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군에 대한 가장 큰 불충인 것이었다.³⁹⁾

호기리를 참살한 나가이 도쿠와 나가이 나오키는 단도를 손에 쥐고, 자신의 배꼽에서 3센티미터 위쪽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고, 그대로 오른쪽 옆구리까지 가르는 할복자살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나가이 도쿠는 할복할 때, 가이샤쿠 역할을 해 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나가이 도쿠는 열일곱 살 때 사무라이 한 사람을 참살해서 할복할 각오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항상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다. 나가이 도쿠는 형의 목은 자신이 치고, 자신의 목은 아버지에게 쳐 달라고 할 생각이었다.⁴⁰⁾

위 문장을 분석해 보면, 형인 나가이 나오키의 목을 쳐 주는 가이샤쿠 역할은 나가이 도쿠 자신이 하고, 자신의 목을 쳐주는 가이샤쿠는 아버지에게 부탁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나가이 도쿠의 둘째 아들 나가이 다이스케는 아버지가 과거 무사시절의 이야기를 말할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보다는 불쾌한 느낌이 앞섰다」고 비판한다.

나가이 도쿠의 아버지는 두 아들이 할복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만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에 먼 친척 집 잔치에 불려간 어머니를 불러 오게 했다. 어머니가 올 때까지 두 아들에게 훈계를 하기도 하고, 할복할 자리를 준비하게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아버지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무사도의 행동규범과 관습에 의해 할복자살을 해야만 되는 두 아들은 세도가였던 다카기(高木)의 도움에 의해 아래와 같이 살아남아 남몰래 집을 떠나게 된다.

37) 텍스트 「3」, 355-356쪽.

38) 앞의 책, 구태훈 『일본의 무사도』, 174-175쪽 참조.

39) 위의 책, 175쪽.

40) 텍스트 「4」, 359쪽 참조.

어머니가 초대되어 왔던 곳이 마침 어머니의 먼 친척이 되는 다카기(高木)라는 세도가의 집이었던 점이 두 사람에게는 천만다행이었다. 왜냐하면 그 무렵은 사회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때로 무사의 규율도 예전처럼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탓이었다. 게다가 살해된 상대는 평판이 나쁜 무뢰한 청년이었다. 그래서 다카기는 어머니와 함께 나가이 집으로 와서 관아의 공식적인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할복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놔두도록 아버지를 설득했다. (中略) 다카기는 그 후로 바빠 뛰어다녔다. 우선 영주의 중신(重臣)을 설득했다. 그리고 나서 중신을 통해서 영주를 설득했다. (中略) 형제는 한동안 한방에 틀어박혀서 근신한 후 둘 다 남몰래 집을 떠났다.⁴¹⁾

무사도의 규율과 관습에 의해 할복자살을 해야만 되었던 나가이 도쿠와 형 나가이 나오키는 당시 자신들의 어머니의 먼 친척인 세도가 다카기가 영주의 중신과 영주를 설득하여 간신히 할복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가이 도쿠는 자신이 사업에 종사하여 성공한 것은 성실이라는 도의(道義) 때문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도의는 에도시대의 무사교육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는 실제로 메이지유신 이전인 에도시대에 무사 고유의 도의 본위(道義本位)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 그는 옛날에 자신이 도의본위 교육을 받았던 강한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현재의 사업을 이 정도로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가이 도쿠는 자신이 에도시대에 무사 고유의 도의본위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무사도의 행동규범과 관습을 어기고, 세도가 다카기에게 부탁하여 편법에 의해 할복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나가이 다이스케는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가짜 군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이 부족한 바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5. 결론

이제까지 분석 점검한 것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호기리와 나가이 도쿠 형제와의 싸움은 일본의 무사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일대 일 승부」가 아니었다. 먼저 칼을 맞은 사람은 나가이 나오키

41) 텍스트 「3」, 356-357쪽.

였다. 나가이 나오키가 호기리와 싸워 칼싸움 실력 차이로 인해 패배하여, 그가 죽음 다음, 나가이 도쿠가 정정당당하게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나서는 것이 무사도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이었다. 그런데 나가이 도쿠는 자신의 형이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아직 싸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칼을 빼어 들고 나가, 형과 함께 호기리를 무참하게 참살했던 것이다. 즉, 나가이 도쿠는 무사들의 전통적인 행동규범이었던 「일대 일 승부」가 아닌, 「일대 이 승부」를 통해 호기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무사가 사사로운 싸움에 휘말려 상대 무사를 참살했을 경우에는, 에도시대 무사의 행동규범과 관습, 막부의 규정 등을 어긴 것이므로 할복을 해야 했다. 또한 에도시대에 무사가 싸움에 휘말려 상대 무사를 죽이고 할복하여 죽는다는 것은 주군에 대한 가장 큰 불충이었다. 호기리를 참살한 나가이 도쿠 형제는 에도시대 무사의 행동규범과 막부의 규정에 의해 할복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야 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먼 친척인 세도가 다카기가 영주의 충신과 영주를 설득하여 나가이 도쿠 형제는 간신히 할복을 피해 살아남았던 것이다.

셋째, 에도시대에 무사들의 행동규범과 관습 등은 무사도로 정립되어, 무사는 용기·명예·충성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다. 호기리와 나가이 도쿠 형제와의 일대 이 싸움, 나가이 도쿠 형제의 편법에 의한 할복자살 회피 등은 에도시대 말기에 무사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열강의 일본 진출에 의한 근대문명 수용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무사의 전통적인 규율, 관습 등이 예전처럼 지켜지지 않고 속물(俗物)적으로 몰락(沒落)하는 단면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에도시대 말기에 태어난 나쓰메 소세키는 무사들이 자신들의 명예로운 전통을 지켜가지 못하고 메이지로 시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본 모습을 버리고 편법을 동원하여 살아남는 모습과 무사도라는 전통(傳統)이 허세(虛勢)로 남아버린 메이지시대의 풍경 등을 작품을 통해 숨김없이 묘사했던 것이다.

【参考文献】

- 구태훈(2005) 『일본의 무사도』, 태학사. p.174-175.
- 공의식(2002) 「일본의 무사도와 그 현대적 의미」,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책사랑. p.44-45.
- 권혁건(2007) 『나쓰메 소세키 생애와 작품』, 고려대학교출판부, p.33.
- 김영(2002) 『일본문화의 이해』, 제이앤씨. p.234.
- 니토베 이나조 저, 이만희 편(2002) 『일본인들의 무사도 정신』, 학문사. p.157.
- 니토베 이나조 저, 양경미, 권만규 옮김(2006) 『일본의 무사도』, 생각의나무, p.152-211.
- 이케가미 에이코 지음, 남명수 옮김(2008) 『사무라이의 나라』, 지식노마드. p.382.
- 연민수(1998) 『일본역사』, 보고사. p.85-121.
- 오현수(2003)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강담(講談) 취미」, 『일어일문학연구』 「第45輯」. p.150-154.
- 윤혜영(2005) 「『산시로(三四郎)』와 『그 후(それから)』에 묘사된 감각표현 고찰」, 『나쓰메 소세키의 전기 삼부작 연구』, 한국夏目漱石研究会 編. p.89.
- 学研·語学ソフトウェア開発部 編(1985) 『JAPAN AS IT IS 日本タテヨコ』, 学研. p.266.
- 斎藤英雄(1985) 「真珠の指輪の意味と役割- 『それから』の世界-」, 『夏目漱石Ⅲ』, 有精堂, p.148-159.
- 下中弘 編集(1993) 『日本大事典』 「第四卷」, 平凡社, p.237.
- 下中弘(1994) 『日本史大事典』 「第6卷」, 平凡社, p.160-161.
- 相賀徹夫編(1987) 『日本大百科全書』 「1」, 小学館. p.855-856.
- 夏目漱石(1966) 『漱石全集』 第四卷, 岩波書店, p.344-441.
- 夏目金之助(1994) 『漱石全集』 「第六卷」, 岩波書店. p.616.
- 夏目漱石(2005) 『坊っちゃん』, 岩波書店. p.10.
- 夏目漱石(2007) 『夢十夜他二篇』 「第二夜」, 岩波書店. p.12.
- 夏目金之助(1994) 『漱石全集』 「第12卷」, 『夢十夜』, 岩波書店. p.123.
- 三田村信行(1994) 『夏目漱石』, 偕成社. p.9-33.
- 三谷一馬(1991) 『明治物売図聚』, 立風書房. p.160.
- 丸谷才一(1990) 「慶応三年から大正五年まで」, 『夏目漱石』, 河出書房新社. p.11.

要 旨

Following is the summary of what the writer has analyzed.

First, the fight between Hogiri, and the Nagaitoku brothers was not 「Single Combat」 kept traditionally among Japanese warriors. Nagaitoku could beat Hogiri through 「One on Two fight」, which was against the traditional standards of behavior of Warriors.

Second, the Nagaitoku brothers, who decapitated Hogiri, had to finish their lives by self-disembowelment, but could have a narrow escape from it. That was because a power, Takagi, who was a distant relative on the maternal side, persuaded the lord of a manor and the senior statesmen.

Third, in the late Edo era, warriors couldn't keep their honorable tradition in the course of a change to Meiji era. They deserted themselves and resorted to an expedient to survive. That is, the tradition of warriors only remained in a bluff in the Meiji era. It is said that the warriors' bluff is well and openly described in Nastume Soseki's works.

キーワード : Tradition, a Bluff, murder, Meiji era, One on Two fight,
Self-disembowelment

투 고 : 2009. 5. 31
1차 심사 : 2009. 6. 13
2차 심사 : 2009. 6. 27